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명예본부장 5인 위촉

지역 농업인·상생 협력 관계 강화

이정진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5-04-03 12:04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최근 명예본부장 위촉식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최근 홍영신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장, 김매숙 한국여성농업인 전남연합회장, 최원섭 한국농촌지도자 전남연합회장, 김경임 한국생활개선 전남연합회장, 신정옥 한국쌀전업농 전남연합회 회장 등 총 5명의 도내 농업인 단체장을 대상으로 '명예본부장 위촉식' 행사를 개최했다.

3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명예본부장제'는 농업인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한국농어촌공사 주요사업과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 지역농업인과 상생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이날 행사는 명예본부장 위촉장 수여, 공사 배지 걸기 행사,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영자문간담회 순으로 개최됐다.

명예본부장들은 지역본부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본부의 실시간 용수관리 상황과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확인하는 등 공사 업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저수지, 수문 등 지역 현장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모니터링되고 운영을 시연해보는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용수가 관리되는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공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행사 소감에서 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공사의 농촌용수관리, 생산기반, 지역개발, 농지은행 등 공사 사업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명예본부장으로 위촉된 만큼 공사 홍보와 농업 현장 간의 상호 이해를 돕는 가교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식 본부장은 "관내 18개 지사에서도 농업인단체와 연계한 명예지사장제도 함께 시행했다"며 "제도가 단발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역 농업인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상생적 관계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명예본부장 5명 위촉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1:05 |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1:05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도내 농업인 단체장을 대상으로 '명예본부장 위촉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위촉된 명예본부장은 홍영신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장, 김매숙 한국여성농업인 전남연합회장, 최원섭 한국농촌지도자 전남연합회장, 김경임 한국생활개선 전남연합회장, 신정옥 한국쌀전업농 전남연합회 회장 등 총 5명이다.



김재식(중앙)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 '명예본부장' 5명 위촉식. [사진=한국농어촌공사전남] 2025.04.03
ej7648@newspim.com

전남본부 '명예본부장제'는 농업인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한국농어촌공사 주요사업과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 지역농업인과 상생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날 행사는 명예본부장 위촉장 수여, 공사 बै지 걸기 행사,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영자문간담회 순으로 개최됐다.

특히 지역본부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본부의 실시간 용수관리 상황과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확인하는 등 공사 업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수지, 수문 등 지역 현장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모니터링되고 운영을 시연해보는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용수가 관리되는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공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행사 소감에서 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공사의 농촌용수관리, 생산기반, 지역개발, 농지은행 등 공사 사업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명예본부장으로 위촉된 만큼 공사 홍보와 농업 현장 간의 상호 이해를 돕는 가교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식 본부장은 "지역에 18개 지사에서도 농업인단체와 연계한 명예지사장제도 함께 시행했다"며 "제도가 단발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역 농업인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상생적 관계를 꾸준히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명예본부장' 위촉식 개최

지역 농업인과 상생적 협력 관계 강화 등

2025년 04월 03일 (목) 오후 05시 11분 40초
한봉수기자 onda88@inews24.com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홍영신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장·김매숙 한국여성농업인 전남연합회장 등 도내 농업인 단체장을 대상으로 '명예본부장 위촉식'을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홍영신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장 등 농업인 단체장을 대상으로 '명예본부장 위촉식'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전남본부의 '명예본부장제'는 농업인 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한국농어촌공사 주요사업과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 지역농업인과 상생적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제도이다.

이날 행사는 명예본부장 위촉장 수여·공사 배지 걸기 행사·주요업무계획 보고·경영자문간담회 순으로 개최됐다.

지역본부 재난안전상황실의 '실시간 용수관리 상황'과 '재난안전 대응 체계' 등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실을 견학했다. 또 현장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저수지·수문 등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상황을 시연해보는 등 '용수관리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식 전남본부장은 "관내 18개 지사에서도 농업인 단체와 연계한 명예지사장 제도를 함께 시행했다"며 "지역 농업인단체와 소통과 교류를 통해 농어촌 발전을 위한 상생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한봉수 기자 onda88@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 연에스포츠는 조이뉴스24 본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기사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명예본부장' 5명 위촉

✎ 주동석 기자 | Ⓜ 승인 2025.04.03 10:55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지난 달 31일 홍영신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장, 김매숙 한국여성농업인 전남연합회장, 최원섭 한국농촌지도자 전남연합회장, 김경임 한국생활개선 전남연합회장, 신정옥 한국쌀전업농 전남연합회 회장 등 총 5명의 도내 농업인 단체장을 대상으로 '명예본부장 위촉식'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전남본부 '명예본부장제'는 농업인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한국농어촌공사 주요사업과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 지역농업인과 상생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날 행사는 명예본부장 위촉장 수여, 공사 뱃지 걸기 행사,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영자문간담회 순으로 개최됐다.

특히 지역본부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본부의 실시간 용수관리 상황과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확인하는 등 공사 업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수지, 수문 등 지역 현장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모니터링되고 운영을 시연해보는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용수가 관리되는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공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행사 소감에서 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공사의 농촌용수관리, 생산기반, 지역개발, 농지은행 등 공사 사업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명예본부장으로 위촉된 만큼 공사 홍보와 농업 현장 간의 상호 이해를 돕는 가교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관내 18개 지사에서도 농업인단체와 연계한 명예지사장제도 함께 시행했다"라며 "제도가 단발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역 농업인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상생적 관계를 꾸준히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동석 기자 jds155@naver.com

농어촌공사 전남, 명예본부장에 농업인 단체장 5명 위촉

✎ 이창식 기자 | ⓒ 승인 2025.04.03 11:04

상생적 협력 관계 강화 도모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5명의 도내 농업인 단체장을 대상으로 '명예본부장 위촉식'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홍영신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장, 김매숙 한국여성농업인 전남연합회장, 최원섭 한국농촌지도자 전남연합회장, 김경임 한국생활개선 전남연합회장, 신정옥 한국쌀전업농 전남연합회 회장 등 총 5명의 도내 농업인 단체장을 대상으로 '명예본부장 위촉식' 행사를 개최했다.

3일 전남본부에 따르면 '명예본부장제'는 농업인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한국농어촌공사 주요사업과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 지역농업인과 상생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날 행사는 명예본부장 위촉장 수여, 공사 बै지 걸기 행사,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영자문간담회 순으로 개최됐다.

특히 지역본부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본부의 실시간 용수관리 상황과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확인하는 등 공사 업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수지, 수문 등 지역 현장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모니터링되고 운영을 시연해보는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용수가 관리되는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공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행사 소감에서 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공사의 농촌용수관리, 생산기반, 지역개발, 농지은행 등 공사 사업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됐다"며, "명예본부장으로 위촉된 만큼 공사 홍보와 농업 현장 간의 상호 이해를 돕는 가교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식 본부장은 "관내 18개 지사에서도 농업인단체와 연계한 명예지사장제도 함께 시행했다"며 "제도가 단발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역 농업인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상생적 관계를 꾸준히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식 기자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5개 농업인 단체장 '명예 본부장' 위촉

✎ 정운석 기자 | ⌚ 승인 2025.04.03 14:39

명예본부장제, 농업 현장의 목소리 직접 청취하고 이를 공사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반영



김재식 본부장이 주관한 위촉식에는 홍영신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장, 김매숙 한국여성농업인 전남연합회장, 최원섭 한국 농촌지도자 전남연합회장, 김경임 한국생활개선 전남연합회장, 신정옥 한국쌀전업농 전남연합회 회장 등 전남 지역 농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촉됐다.(사진=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지역 농업인들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행보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도내 주요 농업인 단체장 5명을 '명예본부장'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김재식 본부장이 주관한 이번 위촉식에는 홍영신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장, 김매숙 한국여성 농업인 전남연합회장, 최원섭 한국농촌지도자 전남연합회장, 김경임 한국생활개선 전남연합회장, 신정옥 한국쌀전업농 전남연합회 회장 등 전남 지역 농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촉됐다.

전남본부가 도입한 '명예본부장제'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공사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농업인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요 사업과 경영 전반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는 명예본부장 위촉장 수여, 공사 बै지 걸기 행사,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영자문간담회 순으로 개최됐다.

지역본부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본부의 실시간 용수관리 상황과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확인하는 등 공사 업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수지, 수문 등 지역 현장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모니터링되고 운영을 시연해보는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용수가 관리되는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공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행사 소감에서 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공사의 농촌용수관리, 생산기반, 지역개발, 농지은행 등 공사 사업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명예본부장으로 위촉된 만큼 공사 홍보와 농업 현장 간의 상호 이해를 돕는 가교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식 본부장은 "관내 18개 지사에서도 농업인단체와 연계한 명예지사장제도 함께 시행했다"면서 "제도가 단발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역 농업인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상생적 관계를 꾸준히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운석 기자 hkilbokj@hanmail.net

농어촌공 전남 '명예본부장' 위촉식

✎ 김육봉(=호남) 기자 | ⓒ 승인 2025.04.03 11:03



[사진 제공=한국농어촌공사]

[폴리뉴스 김육봉(=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최근 총 5명의 도내 농업인 단체장을 대상으로 '명예본부장 위촉식' 행사를 개최했다.

‘명예본부장제’는 농업인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한국농어촌공사 주요사업과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 지역농업인과 상생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장, 김매숙 한국여성농업인 전남연합회장, 최원섭 한국농촌지도자 전남연합회장, 김경임 한국생활개선 전남연합회장, 신정옥 한국쌀전업농 전남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명예본부장 위촉장 수여를 비롯해 공사 뱃지 걸기 행사,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영자문간담회 순으로 개최됐다. 특히 지역본부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본부의 실시간 용수관리 상황과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확인하는 등 공사 업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수지, 수문 등 지역 현장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모니터링되고 운영을 시연해보는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용수가 관리되는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공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행사 소감에서 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공사의 농촌용수관리, 생산기반, 지역개발, 농지은행 등 공사 사업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명예본부장으로 위촉된 만큼 공사 홍보와 농업 현장 간의 상호 이해를 돕는 가교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식 본부장은 “관내 18개 지사에서도 농업인단체와 연계한 명예지사장제도 함께 시행했다”라며 “제도가 단발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역 농업인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상생적 관계를 꾸준히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육봉(=호남) 기자 news1@polinews.co.kr

전남농어촌공사, 농업인단체장 5명 '명예본부장' 위촉

✎ 이강산 기자 | ㉠ 승인 2025.04.03 16:44 | □ 호수 3671

[한국농어민신문 이강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3월 31일 농업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위해 단체장 5명을 명예본부장으로 위촉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가 3월 31일 농업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위해 단체장 5명을 명예본부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명예본부장은 홍영신 한농연전남도연합회장, 김매숙 한여농전남도연합회장, 최원섭 한국농촌지도자전남도연합회장, 신정욱 한국쌀전업농전남도연합회장, 김경임 한국생활개선전남도연합회 등 5명이다.

명예본부장 제도는 도내 농업인 단체장을 명예본부장으로 위촉해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를 공사 경영에 반영하는 등 지역농업인과 상생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관내 18개 지사에서도 농업인 단체와 연계한 명예지사장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라면서, “제도가 단발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역 농업인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농어촌 발전을 위한 상생적 관계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이강산 기자 leeks@agrinet.co.kr



이강산 기자 leeks@agrinet.co.kr